



低開發 國家의 技術支援 事業의 必要性

農業振興公社이디오피아派遣

權 五 完※

Kwon O-wan

- <목 차>
1. 이디오피아의 현황
 2. 국민 생활
 3. 당면한 문제
 4. 기술지원 사업의 필요성

1. 이디오피아의 현황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북단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와 함께 비교적 외세의 지배를 적게 받는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독립국가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한국동란시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우방이었고 1974년 좌익 구태타로 공산화 된 이후에도 계속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는 열대권에 속하며 우리나라 남한 면적에 약 12배이나 인구는 3,000만으로 추산되고 국민 대다수가 해발 1,000m~2,500m의 고산지역에 집중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문맹율은 90% 가 넘는 극히 저 개발국가에 속한다.

정치적으로는 1974년 이후부터 군부가 집권하고 있으며 최근 동북방 Eritrea와 Tigre주의 분리주의 세력에 의한 게리라 활동과 소말리아 국경 분쟁 등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이다.

2. 국민생활

WFP와 FAO 합동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소득 100\$ 미만의 국가가 세계에 7개국이 있으며 그

※ 土木技術士(灌溉排水 및 農地造成)

중에 한 나라가 이디오피아라고 발표되어 있다. 수도 Addis Ababa는 기본적인 문화 시설과 생활필수품의 수입으로서 일상 생활에 불편은 없으나 지방 농민들의 생활상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원시적 방법으로서 아직도 “돌”이 중요 생활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마치 우리 조상들의 유목 및 석기 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

3. 당면한 문제

저 개발국가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식량부족은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국토는 심히 황폐되어 매년 국민 대다수가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계원조기관과 각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년중 영농할 수 있는 기후, 풍부한 토지 및 수자원을 가진 농업국가 이면서 왜 식량부족을 매년 당하고 있는가?

자연적, 사회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자연적 환경이 이 국민을 게으른 습성을 만들었고, 자연 원시적 농업 및 축산 형태가 자연환경을 극도로 파괴하여 전 국토의 대부분이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사막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토지관습은 농지와 산림을 보호하며 이용할 줄 모르는 습성을 길러 비옥한 농토는 매년 많은 Gully 현상으로 경지면적이 축소되고 생산량은 감소되고 있다. 또한 산지는 무차별 난별과 경작으로 인한 토양유실로 목초지가 없으며 골짜기 샘물은 자취를



“시장 풍경” 아직도 물물교환으로 생활필수품이 유통된다

감춘지 오래되어 식수마저도 5~10km밖에서 운반하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나라의 토양보전(Soil Conserva-

tion)사업은 국토의 복원(Rehabilitation) 또는 사막화 방지를 의미하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문제이며 시급히着手되어야 할 사업이다.



79 6 7

도로건설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 노임으로 3kg의 소맥이 지급된다

FAO의 Soil Conservation 전문가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자연환경이 극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식량부족의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한다.

4. 기술지원 사업의 필요성

아프리카주 몇개국에 우리건설 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 이디오피아에는 없다.

그러나 양국간의 의료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1969년부터 우리나라 자금에 의한 의사 2명이 파견되어 있고 또한 IDA 자금으로 시행되는 유역종합개발 사업을 위하여 농업토목 기술자 4명이 이디오피아 정부 고용으로 1977년부터 활약하고 있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자국 자금과 기술자 부족으로 활발한 국토 개발사업은 없으나 각국으로부터 여러가지 형식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은 장차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참여를 위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가까운 이웃 중공에서 약 160여명의 기술진이 도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파까지도 약 10여명의 농업 및 수자원기술자들이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때 우리나라 저개발 국가 기술지원 사업을 정부의 지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저개발국가는 생활여건이 불편한점이 많아 선진국 기술자들의 참여 기회로 개발도상국 가와 같은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 아니므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이점등을 고려하여 우리기술자들의 해외기술 진출문호개척의 일환으로 저개발국가 기술지원 사업을 외교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1968년부터 IDA자금으로 시행되는 유역종합개발 사업의 Technical Project Manager로서 이디오피아 정부에 고용되어 있음.

생활 속에 심은 과학 번영으로 피어난다